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포함)사업 심의 총평

1. 전통예술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사업 전통예술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12월 6일(금) 10: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지은, 류근화, 이예진, 조경선, 한상일

본 사업의 취지는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신규채용 지원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기획·경영, 예술창작·실연, 무대기술인턴 등의 전문 예술인력을 육성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위원들은 각 단체의 지원신청서 및 붙임 서류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전 공지된 심의 기준표에 준하여 정량점수와 정성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선정권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각 단체의 예술활동 이력 및 2025년도의 예술활동 계획을 통해 단체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했으며, 대상자의 육성계획 및 업무분장, 지원인력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지원인력의 업무환경 및 성장 가능성, 업무 범위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심의위원들은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각 단체의 연수단원과 무대기술인턴의 지원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체의 조직역량과 예술사업의 규모를 인력 필요성과 연계하여 논의하였으며,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실연 분야의 인원에 비중을 높이 두었습니다. 창작·실연 연수단원은 직무의 적정성과 역할의 명확성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획·경영 인력은 단체의 관련 인력 유무와 업무분장의 적합성, 업무보조의 필요성 등을 기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무대기술인턴은 전문기술 성장에 중점을 두어 공연장의 장비와 인턴의 교육환경, 육성계획 등에 집중하여 결정했습니다.

문화예술연수단원 지원사업은 청년층 전문 예술인력의 육성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 예술활동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심의위원들은 이에 기준하여 총71개 단체의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된 신청서였으나, 지원서의 내용 상 장르 지원에 혼동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에 있어 내용이 과하게 전문적이거나 포괄적인 경우, 창작·실연 인력의 역할이 모호하여 예술사업 내에서의 필요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여러 직군의 신청 시 내용이 한 쪽에 편중된 경우, 업무환경 및 육성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단체의 신뢰도 및 심의 근거가 부족하여 안타까운 상황도 다수 있었습니다.

본 심의가 심의위원들의 숙고를 통해 결정된 만큼 선정 단체에게는 신청 인력의 구분에 따라 그 인력을 고용하고 적확하게 운영하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기획·경영 연수단원의 경우 보조적인 역할을 통해 그 전문적 역량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업무 배정을 기대합니다. 창작·실연 단원 역시 이 사업을 통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여 단체와 각 개인의 창작기반 및 역량 강화에 상호 상승효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선정된 단체에게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연수단원 및 인턴의 체계적 발돋움을 위해 힘써줄 45개의 공립·민간 문화예술단체와 66명의 연수단원 및 인턴들에게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단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